

## News

### 삼성일가, 상속세 위해 시중은행서 수천억원 신용대출 받는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가족들이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의 일부를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  
삼성 일가에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줄 한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아 최고 등급의 '여신심사 협의체'로 대출 여부를 검토 후 '특별 승인' 결정을 내림

### 우리금융, 교보생명·한화손보 등과 민간 데이터 댐 만든다

머니투데이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그룹은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등과 함께 민간 데이터 댐 구축을 추진한다. 나이스평가정보와 통신사도 참여를 타진 중  
초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댐이 만들어지면 각사 보유 고객의 가명처리된 정보를 수집하고 결합·분석해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시중은행 중금리대출, 2년 만에 40% 감소

조선비즈

시중은행이 지난 2년간 중금리 대출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금리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를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지방은행은 71% 이상 증가.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무관심 현상은 2년째 지속

### 단 두 개 회사로 금융지주 넘보는 카카오

비즈니스워치

기업공개(IPO)에 나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전부터 대형 금융지주사 시가총액에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에게 날개가 달리는 모습  
전통적인 잣대에 비춰볼 땐 고평가 논란이 나오지만 디지털 금융 환경에 가장 적합해 막대한 기업가치가 충분히 합당하다는 것으로 평가도 빈번히 등장한다.

### '배일 가려진 지분율' 삼성생명 상속분 일부 시장에 나오나

이데일리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보유한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배분 방안 공개를 결국 유보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전량 물려 받거나, 가족들과 배분 받을 가능성 언급된다. 지분 전량 상속받을 경우 세금 재원마련을 위해 절반 가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

### 악사손보, 다음달 5일 영업용 차보험료 8.9% 인상

뉴시스

앞서 중소형 보험사들이 차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프랑스계 손해보험사 AXA손해보험은 다음달 5일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8.9% 올린다고 밝혔다.  
손해를 악화에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115.4%를 기록했으며, 전연령렌트카 손해율은 200%가 넘었다.

### 돈 번 '서학개미' 이렇게 많았나...증권사 양도세 신고 6배 폭증

서울경제

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4개사에 올해 들어온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5만 6,721건으로 집계  
지난해(8,574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각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 옵티머스 원금 반환 놓고 고민하는 NH증권... 의사결정 기한 연장 검토

조선비즈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 답변 기한을 2~4주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안 답변 기한을 미루면, 그만큼 답변 부담이 줄어든다. 1년 남은 금감원장직을 윤 원장이 연임할지를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